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9월 10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4-8절

설교제목 :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겔45:21) 무교절의 예표적 의미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본문이 구조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첫 날의 안식일과 칠일째 되는 안식 사이에 있습니다.(7-8절) 무교절은 안식과 안식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클루지오, 수미상관구조, 감싸기 구조라고 합니다. 감싸기 구조를 통해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의 핵심 주제는 안식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단적으로 무엇임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한 것을 구약의 역사로 말하면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규정하였습니다.(출13:5) 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합니까? 가나안의 삶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에덴의 삶과 가나안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삶이 같은 의미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완성된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삶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 안에 있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맛보며 살지만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을 다루는 주제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히4:3)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합니다.(히4:11) 이미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의 삶이란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류 역사를 통해 추구한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의 상실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결코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안식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안식을 방해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봄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무교절적 삶을 사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칠칠절의 예표가 바로 성령의 오심을 예표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고 명하십니다.(수1:12-15) 이 땅의 교회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과 함께 싸워서 형제의 안식을 함께 지켜내는 삶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안식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6절)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양식 삼지 않아야 합니다. 양식삼는다는 것은 내 삶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과 번성과 지식과 물질과 등으로 삶의 힘과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선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부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끝에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름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보면서 배가 부릅니다. 또한 쌓여진 물질을 보면서 배가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헛배를 부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배부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만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로 양식을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양식 삼는다면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양식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술 안먹고, 담배안피는 것으로 구별됨을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로 양식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돈으로 안되, 야 저 사람은 성공으로 안되, 저 사람은 예수로만 돼. 이것이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양식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인 이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연합한 삶입니다.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양식 삼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왜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봅시다.(출13:5)
- 2)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레23:6)
- 3)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양식삼아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오직 예수님만 양식삼아 사는 백성됨을 증거할 수 있을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